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두 수고한다. SS 숫자도 많은데 관리하느라 수고 많았다. 수시로 주님이 너희들에게 가신단다. 늘 돕고 있으니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하고, 어려운 것 물어보라고 하신다.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앙을 넣어주어 기본을 잡아주어라. 재림에 대해 묻는 자는 그같이 대답하게 하고, 선생이 처음부터 가르친 교리니까 예수님을 맞는 자는 항상 신부요, 자녀들이라고 가르쳐주어라.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재림에만 신경 써서 이단소리를 들은 것이다. 같은 말씀이지만 방법을 달리 하여 가르치면 이단 소리 안 듣고 훨씬 전도 많이 할 수 있다.

교리는 이와 같이 신경 쓰고, 선생만 중심하지 말게 해. 나 중심하면 나에게 화살이 다 날아와요. 신부가 남편이 되면 안 되잖아. 주님이 남편, 나는 신부, 맞는 자들은 자녀 아니면 신부야. 선생은 주님이 영으로 오심을 알고 맞은 자로서 하나의 중심인물로 가르치면 돼.

깊이 가르칠 것 없이 타락, 부활, 지상천국, 삼분설 이런 것을 집중으로 가르치고, 회개와 가인성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전도할 때는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해야 된다. 그래야 2만 명으로 쉽게 올라간다. 알겠어요?

해외 있다가 10년 만에 와보니 초점이 많이 돌아가서 교정해주는 것이다. 알겠지요? 예수님을 중심하여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니 선생을 쓰고 일하고, 또 여러분들을 손발 삼아 행한다.

선생도 영으로 역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해주니 지도자들은 잘 듣고,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잘 코치해줘야 된다. 알겠지요?

인재들을 잘 빼내어 길러주고, 각 교회에서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고등학교 때 인재들 다 뽑아놓고, 관심을 가지고 길러야 해

요. 크면 목사 되고, 지도자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희망을 넣어줘야 해요.

집에서 부모들 핍박 조심하라고 교육해줘요. 중고등부를 다루는 지도자들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심리도 잘 알아야 돼요. 각 교회에서 지도하는 자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부로도 받지 않겠어요?

모두 선생이 안부 전한다고 SS들에게 각각 말해줘요. 안녕~

2008년 9월 3일 선생.